

성소수자 부모모임!

매월 세번째 화요일 오후 6시
정기모임: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
문의: lgbtpride@empas.com



성소수자 부모모임

"애랑 병원에 트랜스젠더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, 그게 그 의사 선생이 상담 자격이 없는 거죠. "너는 여자와의 섹스를 상상하냐, 남자와의 섹스를 상상하냐" 이러니까 애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화를 내고 나온 거예요. 그랬더니 의사도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더니 애가 어려서 진단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막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진단도 못 받고, 약도 못 받고 오는데.. 제가 너무 불쾌하더라구요. 근데 이런 걸 애가 살아가면서 계속 경험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.. 화가 났어요."

"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. 그때 "너 동성애자로 살면 불행할 거야"하고 이야기한 건, 사회적 편견 때문에 아이가 불행하게 살까봐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, 사실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건 저였던 거예요. 자기를 받아들이주지 않는 가족들의 시선이었던 거죠.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아이한테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."

<http://cafe.naver.com/rainbowmamapapa>

